

# 고려대 학교추천전형 지원전략 가이드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7학년도 대입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둔 마지막 '구(舊) 체제'의 정점이다. 특히 고려대학교의 학교추천전형은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로, 선발 방식의 단순함 속에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다. 필자는 대학 측이 발표한 시행계획과 2027 고려대 입시설명회 통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필승 로드맵을 제시하려 한다.

고려대 지원의 첫 번째 관문은 전형 간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려대는 수시 모집에서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 간의 중복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내신 정량 점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면접 없이 합격하려는 '안정형(학추)'과, 높은 수능 최저 학력기준 충족 역량을 바탕으로 서류의 깊이를 보여주려는 '상향형(학우)'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통계적으로 내신 1.2 내외의 극최상위권은 학추를, 1.4에서 1.6 선이면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학업

우수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교별 최대 추천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되므로, 교내 서열과 본인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대조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카드를 확정 짓는 것이 논리적 전략의 시작이다.

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 90%와 서류 10%를 일괄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교과 점수는 전 교과를 반영하며 고려대만의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등급 간 감점 폭의 비대칭성이다. 1등급(100점)부터 3등급(92점)까지는 등급당 4점씩 감점되지만, 4등급은 86점으로 감점 폭이 6점으로 급격히 확대된다. 이는 비주요 과목에서 단 하나의 4등급이라도 발생할 경우, 주력 과목의 1등급으로도 만회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3학년 1학기까지 균형 잡힌 성적 관리가 학추 합격의 대전제다.

학교추천전형의 외형적 경쟁률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라는 필터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낮아진다. 인문·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의과대학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를 요구한다. 2027 고려대학교 입학처 입시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인문·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70% 수준이

며, 특히 의예과는 지원자의 41.1%만이 기준을 통과한다. 탐구 영역은 상위 1개 과목만 반영되므로 확실한 한 과목을 1등급으로 만드는 전략이 분석적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자연계열의 폭발적인 증원율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과거 이과대학의 증원율은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222.2%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나 타 대학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인데, 예비 번호가 대폭 순연되는 현상을 역이용해 지원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2027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서류평가에서 정성적으로 반영된다. 학추는 면접이 없는 일괄 전형이기에 10%의 서류 평가는 미세한 점수 차이를 뒤집거나 동점자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된다.

결론적으로 최상의 내신과 최적의 수능 최저를 결합하는 자가 승리한다. 2027 고려대 학추는 내신으로 문을 열고 수능으로 자리에 앉는 전형이다. 신설된 학부대학 등 전공자유선택제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도 안암의 언덕에 오르는 합격의 영광을 거머쥌 수 있을 것이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 메모리 호황의 그늘



기지 수집  
차 현 정  
(산업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드리운 '칩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예상보다 짙어지고 있다. AI 시대 최대 수혜 분야로 꼽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되레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을 갉아먹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갤럭시 S26 시리즈 흥행으로 판매량 자체는 선방했으나 급등한 메모리 가격이 수익성을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동안 메모리칩 가격 강세 역시 지

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경쟁사인 애플조차 아이폰 신제품 가격 동결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높아진 상태다.

삼성전자가 꺼내 든 카드는 제품 믹스 개선과 신규 폼팩터 확대다. 갤럭시 S26 울트라 등 고가 모델 판매 비중을 늘리고 폴더블 제품군 확대를 통해 평균판매단가(ASP)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존 폴드·플립 시리즈를 넘어 '와이드 폴드' 형태의 신규 폼팩터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AI 스마트 클래스 등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히 폴더블폰은 삼성 입장에서 단순한 혁신 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데

다 원가 구조 측면에서도 일반 바형 스마트폰 대비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삼성이 사실상 독주하던 폴더블폰 시장에는 애플 진입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화웨이·모토로라·구글 등 중국 및 글로벌 업체들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결국 삼성전자가 넘어야 할 과제는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가 아니다. AI 시대 들어 급변한 원가 구조 속에서 하드웨어 중심 사업 모델만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칩플레이션 시대에 삼성전자가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신제품이 아니라, 원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사업 구조일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7일 (음 3월 2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0년생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72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84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49년생 매우 잘 풀려 남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73년생 개업 전업 모두 때가 좋으니 시작해도 좋습니다. 85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50년생 작은 근심을 버리세요.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며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1년생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렵습니다. 63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75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87년생 동방향이 길합니다.



52년생 뜻대로 풀리지 않아 재물의 운이 잠시 막히게 됩니다. 64년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76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88년생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다.



53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65년생 이상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7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8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54년생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세요. 66년생 말은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78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90년생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5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67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79년생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91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56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8년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80년생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92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57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69년생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직 생각을 다시하도록 하세요. 81년생 꾸준히 노력하면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93년생 어려워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58년생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70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그냥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94년생 귀화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59년생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합니다. 71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95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 김상회의四季

### 단순함의 미학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들일수록 단순하고 정결하게 인테리어를 하며 복잡함을 배제한다. 미니멀리즘이 현대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유도 단순함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 때문이라.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나고 왜곡되는 진실과 진리를 우리는 그동안 허다하게 경험해 왔다. 무엇보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번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단순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사람은 도구의 노예가 되어가지 않던가. 그런 면에서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은 단순함의 진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오컴은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프란치스코회 수사였던 그는 "필요 없이 가설을 늘려서도 안 되며,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 가능한 것이 더 훌륭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을 폈고, 여기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사교의 원칙이 유래된 것이다.

핵심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가설이 대립한다면, 가장 적은 수의 가정을 필요로 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가설들을 잘라내 버린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면도날을 쓴 것이라 한다. 경제성의 원리로서 경제 효율성을 따지는 단순함이다. 이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음양오행론과 십간십이지의 조합은 여덟 글자로서 인간의 삶과 인생을 무궁무진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수명 백세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긴 세월 동안의 인생계획을 핵심만 뽑아서 좌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은가? 단순한 것이 항상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길게 설명을 한다 해서 본질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그 단순함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무궁무진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핵심을 안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피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7			2	4
9		5		4	2		3
						5	
	7			6			9
	3		4		1		9
6			7			3	
	4						
5			6	8		9	2
7	9			6		4	8

6	2		8	4	1	9	5
		4		9		2	3
			2		5		
2	1					7	
5							2
	7						9
			7		4		
	5	2		1		4	
4	7	3	2	9		6	5

8	7	9	9	1	2	6	2
2	2	6	7	8	9	9	1
2	9	1	9	6	2	8	7
1	9	2	8	2	6	7	9
9	6	9	1	2	7	2	8
6	8	7	9	9	1	2	2
9	9	8	2	1	9	6	2
9	1	2	2	7	8	9	6
7	2	9	6	2	9	8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